

흑한기 보낸 코인시장... '약세 vs 회복' 올 전망 의견 분분

2023 가상화폐 기상도

지난해 흑한기를 보냈던 암호화폐시장이 신년에도 같은 기운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올해 약세장과 회복장 의견이 나뉘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글로벌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비트코인 1개 가격은 1만6500달러, 한화로 약 2100만원이다. 지난해 1월 1일 4만6000달러(한화 5670만원)와 비교하면 65%나 폭락했다.

지난해 '루나-테라사태'를 시작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암호화폐 헤지펀드 쓰리애로우스캐피털(3AC)파산, FTX사태 등 시장에 악재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여파는 신년에도 지속되고 있어 비트코인 가격은 1만6700달러(2130만원)에 머물고 있다.

이에 시장에선 올해에도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겨울·가상자산 가격이 급



올 비트코인 1만6700달러 머물러 美 연준, 고강도 긴축에 동력 잃어 "비트코인 5천달러까지 떨어질 것" 강세론자, 내년 6월 25만달러 전망 "2024년 반감기, 시장에 긍정 영향 큰 손들이 나서 시세 부양시킬 것"

/유튜이미지

락하고 시장에서 자금의 유출이 지속되는 현상)가 지속될 것이라 전망과 '크립토 윈터'가 끝나고 봄이 찾아 올 것이라 의견이 나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강도 긴축 기조와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 이야기가 확산되면서 비트코인 상승 동력을 잃어버렸다는 의견이다.

또한 지난해 FTX 파산 사태로 인해 암호화폐시장이 회복하는데 최소 2년

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데이비드 마커스(David Marcus) 페이팔의 전 최고경영자(CEO)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약세장이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이 비양심적인 플레이어로부터 벗어나고 책임감 있는 규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회복하는데 시

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스탠다드차타드는 보고서에서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5000달러까지 낮아질 것"이라며 "파산 증가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자 신뢰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올해 회복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 의견도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비트코인 강세론자인 팀 드레이퍼는 비트코인이 내년 6월까지 25만 달러(약 3억1750만원)를 돌파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암호화폐 대출업체 넥소의 창업자 안토니 트렌체프 역시 비트코인이 내년 4월까지 10만 달러(약 1억2700만원)를 찍을 것으로 예상했다.

드레이퍼는 CNBC를 통해 "2024년의 반감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공급을 압박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반감기는 4년마다 채굴자에게 지급

되는 비트코인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다음 반감기는 2024년에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지난해 1만달러대로 폭락을 예측한 영국 서섹스대학교의 캐롤 알렉산더 금융학과 교수는 비트코인 시세가 올 1분기에 3만달러, 3분기에 5만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캐롤 알렉산더 교수는 "비트코인이 빠질 만큼 빠졌고 거래량도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은 만큼 업계 큰 손들이 다시 나서 시세를 부양시킬 것"이라며 "과거의 오버슈팅이 일어나지 않는 관리된 상승장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투자심리는 여전히 냉랭한 상황이다.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에서 집계하는 '공포·탐욕 지수'는 27점을 기록하며 '공포(Fear)'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해 50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회복이 필요한 상태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설 성수품 20만t 풀고, 고속도 통행료 면제

추경호 부총리 '설 민생안정대책' '물가·민생 최우선, 설 지원 강화'

정부가 사과·배·돼지고기 등 주요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0만8000t 시장에 풀다. 농축수산물도 총 300억원 가량 할인 지원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평균 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풍요롭고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 민생안정대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사과·배·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0만8000t 공급한다. 농축수산물도 총 300억원 할인 지원한다.

올해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취약계층 부담이 최소화하도록 요금 할인도 대폭 확대한다.

동절기(2022년 10월~2023년 4월)에

설 민생안정 주요 대책

- 설 성수품 공급 확대 20.8만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300억
-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 약 340만호 대상 1분기(1~3월) 가스요금 동결 우대금리 특별보증자리론 한시운영(1분기 출시)
-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 아이 돌봄 지원, 유실유기 반려동물 발견신고 운영
-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명절 정상 운영 한파 대비 비상대응체계 운영

자료: 기획재정부 /뉴스그라픽

너지바우처 단가도 기존 14만5000원에서 15만2000원으로 추가로 올린다.

대체휴무일을 포함한 21~24일 설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 각종 편의 지원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저소득층 먹거리·교육·교통 등의 지원이 설 전후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가 어렵다 보고, 연초부터 신속한 재정 집행과 주요 공공기관 투자의 조기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중앙재정의 경우 상반기

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5% 이상의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다"며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신속 집행 기조에 맞춰 역대 최고 수준인 각각 60.5%, 65.0%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초에는 고용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참가자 모집·채용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 내 관리대상 일자리 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하겠다"며 "최근 연간 100조원 수준으로 급증한 국고보조금이 부정수급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체계도 전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27개 주요 공공기관은 올해 총 63조 3000억원의 투자를 추진한다. 특히,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34조8000억원(55%)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올해 전체로 보면 물가는 하향 안정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당분간은 상방압력 지속으로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는 글로벌 경기 둔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만큼, 정부는 원팀으로 합심해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금값 다시 오름세

경기 불확실성이 이어지며 국제 금값이 다시 오름세를 타고 있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서 직원이 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

"무리한 재개방엔 하방 압력 커질수도"

>> 1면 '2023 차이나 기상도'서 계속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예측치는 평균 4.9%지만 일부에서는 위드 코로나에 따른 내수 회복 기대감을 반영해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HSBC는 "작년 성장이 예상보다 둔화된 만큼 올해는 기저효과로 인한 추가 반등이 기대된다"며 성장률이 최대 6%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모건스탠리는 경기 부양책을 이유로 성

장률 전망치를 기존 5.0%에서 5.4%로, 스탠다드차타드는 완만한 리오프닝을 전제로 5.8% 성장 가능할 것으로 봤다.

다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국제금융센터 백진규 부전문위원은 "무리하게 재개방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사회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위축과 대외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도 경기회복을 저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상기 기자 smahn1@



지난 3일 중국 베이징의 지하철 후자로우역. 근로자들이 일터로 복귀하면서 아침 출근 시간에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신화·뉴스

지난달 외환보유액 70억 달러 늘었다

한은, 기타통화 달러 환산액 증가 영향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70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 달러 약세에 따른 유로화·파운드화·엔화 등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22년 12월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외환보유액은 4231억6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70억6000만 달러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외환보유액이 증가한 배경에 대해 "외환보유액의 일시적 감소 요인인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영향에도, 미달러가 약 2.8% 평가절하되며 금융기관 외화 예수금 및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유로화·파운드화·엔화 등 다른 외환자산의 달

러 환산액은 증가했다. 지난달 엔화 가치는 4.4%, 유로화 가치는 3.3%, 파운드화 가치는 0.9% 상승했다.

지난달 외환보유액 가운데 국제,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을 포함한 유가증권은 369억9000만달러로 전체의 87.4%를 차지했다. 한 달 사이 40억7000만달러 늘었다. 이어 예치금 293억5000만달러(6.9%),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148억4000만달러(3.5%), 금 47억9000만달러(1.1%), IMF포지션 44억9000만달러(1.1%)가 외환보유액을 구성했다.

올해 11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로, 전월 순위를 유지했다. 1위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1175억달러로 전월 대비 651억달러 늘었다. 2위 일본은 1조2263억달러, 3위 스위스는 9059억달러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유리 기자 yul115@